

'웃' 산업화 큰 그림 그린다

임실군, 건강기능성식품
개발 통해 신성장동력 육성
종합세미나서 전략 제시

임실군이 '웃'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다.

군은 12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임실·순창 웃 발효식품기초조사사업'을 위한 종합 세미나를 개최하고, 웃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고부가 식품개발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행정과 농가, 참여기관 연구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웃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갈 차별화된 전략과 비전이 제시됐다.

임실·순창 웃 발효식품기초조사사업은 전북도가 공모한 '2017년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지원받게 되는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65억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이날 세미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헬스케어크레임스 하기찬 박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개발과정"을, 원광대학교 건강개발 교수의 "기능성원료 심사 및 임상시험 개선방향" 등을 각각 제시했다.

또한 원광대 정현주 교수는 "웃나무 성분과 생리활성 연구"를, (주)프롤바이오 이만재 소장은 "개발인정을 위한



임실군은 12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임실·순창 웃 발효식품기초조사사업'을 위한 종합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원료 표준화'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으며, 마지막 발표자로는 전북대 채한정 교수가 '웃 개발인정 비임상 전략'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별인정 승인을 위해서는 행정과 사업단, 농가, 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따라서 분야별 추진상황 협의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미 임실군은 웃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최고의 제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신덕면 금정마을에는 주민주도형 '임실 참웃 특구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지난 2013년부터 현재 107ha 면적에 32만주를 식재해 단일 지구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웃 재배 단지를 조성했다. 2023년까지 400ha에 100만주를 더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운암면 소재지 일원에 28억원

의 사업비를 투자, 550평 규모의 웃 가공공장, 체험장, 판매장을 갖춘 공동이용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군은 향후 웃 발효식품기초조사사업과 함께 소재개발과 기능성식품 연구, 웃 표준화 기술연구, 장류적용 상품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산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상품개발 등이 맞물려 웃 산업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특수한 성분을 활용한 산업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원가절감과 생산공정 표준화, 기능성 식품개발에 이은 가공공장 구축 등 연차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웃 산업을 임실군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건설산업·도로정비 '잘했다'

전북도 평가서 최우수
우수기관 선정 '겸경사'

순창군이 전북도가 실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도로정비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겸경사를 맞았다.

군은 올해 지역업체 수주 및 지역업체 자재구매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근 진행된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평가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전라북도 도로정비 심사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군은 군도 11호선(한내~월정선) 중 순창읍 순화리와 팔덕면 월곡리를 잇는 도로 1.5km 확장공사에 8억원을 투자해 올해 개통했으며 쌓이면 석현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2억원, 도로 유

지관리 사업에 8억원 등 총 4개 노선에 44억원을 투자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편의를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군은 구립 새마을고 16억, 팔덕 팔왕고 10억, 순창읍 신촌고 3억, 중산면 월맹고 12억원 등 위험교량 재가설사업과 인계면 세룡 3억, 중산 2억 5천만원, 인계 심초 3억원, 순창읍 체 자재구매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근 진행된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평가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황숙주 군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지역업체 자재 구매 등을 높이고 군민 편의와 안전확보를 위해 다양한 도로개선 사업 등을 진행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중소기업 무료이동 상담실 운영

남원시는 12일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 무료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번 상담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들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해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무료 이동상담으로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등 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상세한 상담을 통해 기업에 도움을 주었다.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하고 판로지원을 위한 전시·박람회 지원,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관내기업제품 안내책자 발행 홍보,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 추진 등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환주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환주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권역활성화 워크숍 열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 권역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의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임실군은 지난 11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권역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461억원을 투입해 농식품부 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8개 권역을 조성했다.

이번 행사는 7개 권역을 이끌고 있는 권역별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행정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군이 개최하는 첫 상생 워크숍으로 권역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마케팅 등 상호 연계 협력방안을 찾아 시너지 효과를 도모했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개별 권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생과 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권역사업 미조성 지역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순창 온리뷰아파트 교통문제 해결

군, 28억원 투입 도로 개설
인근 주민 '사고위험 덜어'

순창군이 올해 완공된 온리뷰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내년에 28억을 투자해 온리뷰 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및 도로확장 사업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리뷰 입주를 비롯한 인근 거주 주민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166세대 규모로 완공된 온리뷰 아파트 주민들은 순창여중 옆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아 병목현상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에 아파트 맞은

편 쪽으로 길이 377m 폭 8 ~ 10m 도로를 개설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온리뷰 아파트 2차 126세대가 내년 신축될 예정인 가운데 총 300여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불편을 먼저 인지하고 해결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군은 이번 도로개설에 총 13억원의 군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 2019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순창경찰서에서 육전교까지 330m 구간도 15억을 투자해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 온리뷰 아파트 주민들 이용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병목현상 발생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온리뷰

아파트 주변 교통불편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얼마전 온리뷰 아파트에 입주한 이모씨(순창읍, 42)씨는 "온리뷰 아파트에 40% 정도가 입주한 상황에서도 출입도로가 좁아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 걱정했는데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니 정말 다행이다"면서 발빠른 군 행정에 고마움을 표했다.

황숙주 군수는 "우리군은 군민들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도로 개설은 새로운 아파트 입주자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않고 편안한 정주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소외계층에 밀반찬 지원
순창 착한가게 현판 전달

순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정기회의를 마치고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밀반찬을 지원한 착한가게 15개 업소 중 한곳을 방문해 현판식을 진행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밀반찬 지원사업'은 관내 식당에서 저소득층에게 매주 반찬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서로 돕고 사는 기부문화를 이끌어 냈고 소외계층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관내 15개 식당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기회의에서 김삼순 부위원장은 "이처럼 대가없이 지속적으로 밀반찬을 제공해주신 착한가게들에게 감사하다"며 친환경 주방세제 만들어 15개



업소에 제공해 고마움을 표했다.

김종국 위원장은 "밀반찬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봉사자들과 식당에 정말로 감사하다"며 "나눔을 참여한 기쁨을 널리 알려, 지역사회에 뜻 깊은 기부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머지 착한가게에도 이날 중 현판을 전달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트로닉스관
- 어드벤처 라이더관
-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벌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벌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